

KÓKKOS 9

2026

• 코코스는 한 영의 믿음의 의미 • 발행인 최영권 • 편집장 김이강동 •

✧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 TEL. 02-950-5401 • www.kbbu.ac.kr •



SEPTEMBER 2026

VOL. 293

▲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 시용합학전공으로 수업을 받게 될 16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만나보리 광장에 모였다. 이국땅에서 새로운 배움과 믿음의 여정에 나설 이들이 글로벌 복음전도자로 거듭나기를 응원하며 (왼쪽 3번째 윤석훈 국제교류센터장, 12번째 박태수 교목실장) [관련 기사 7면]

2026-2학기, 예배로 문을 열다

“망가진 피아노도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최정권 총장, 새 학기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

2026학년도 2학기, 개강예배로 문을 열었다. 31일 낮 12시 로고스홀, 650여명의 학우들과 교수, 교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찬송가 359장(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을 힘차게 부르며 새학기의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예배는 박태수 교목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최정권 총장은 권면에서 일본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곡 'async'에 담긴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사카모토는 당시 쓰나미로 바닷물과 진흙에 잠겨, 버려진 피아노를 정성스럽게 고쳐 연주하였는데 망가진 피아노에서 의외로 아름다운 정취를 뿜어내어 한층 훌륭한 음악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이처럼 고쳐 쓰신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신다. 우리를 이 대학에 부르셨고 부족해도 훌륭하게 고쳐서 사용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태수 교목실장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막 4:35~41)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우리는 삶의 과정에



▲ 최정권 총장이 2학기 개강예배에서 권면하고 있다

서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날 수 있다.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 이 학교의 주인이시고 선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한 학기를 당당히 걸어 나가자”라고 전했다.

이금주 총학 회장은 2학기에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전공과 신앙을 풍성히 키워가는 성서공동체가 되자며기도하였다.



2학기 BRC 연합 개강예배

“말씀은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길”

김웅기 교수 설교

2026년 2학기 BRC 연합 개강예배를 31일 일립관A 설교실습실에서 드렸다. 예배에서 김웅기 교수가 ‘행복’(시 1:1~6)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말씀은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길이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성취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자신을 무너뜨리는 부정적 생각을 벗어 버리고 분별과 지혜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행복과 형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였다.

최정권 총장은 권면을 통해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든든히 세워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 진로와 사역, 결혼 등 여러 고민과 만나더라도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라”고 권면하였다.

남궁이레 조교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복음전도자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2학기 BRC 지도교수와 조교, 조장은 다음과 같다.

성서학과 A반 김웅기 교수(복음관 301호)

조교 ▲남궁이레, 조장 ▲김대범 ▲김미진 ▲이예인
▲정민기 ▲조예진

성서학과 B반 김정원 교수(복음관 401호)

조교 ▲최인성, 조장 ▲김선덕 ▲김세연 ▲방민아 ▲이민영
▲지성은

시용합학부 A반 한진호 교수(갈멜관 B1 시용합이노베이션)

시용합학부 B반 박상민 교수(밀알관 천마홀)

일반학과 이성아 교수(일립관B 6층 로댐나무 아래)

2026-2학기 부흥사경회

“기도와 간구로 은혜를 경험하라!”

이영훈, 하덕규, 송태근 목사 말씀 선포



이영훈 목사



하덕규 목사



송태근 목사

2026년도 2학기 부흥사경회가 9월 1~4일까지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첫날,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는 ‘기도의 능력’(빌 4:6~7), 둘째날 하덕규 목사(시인과 촌장, 전 백석예대 교수)가 ‘침, 회복, 십자가 그늘’(마 11:28~30)을, 송태근 목사(삼일교회 담임)는 ‘하나님의 심정’(삼상1:15)과 ‘두 번째 기적’(마 14:22~23) 제목으로 이틀간 말씀을 전했다.

▲ 이영훈 목사 (9월 1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로 염려와 불안이 클수록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기도가 절망에 놓인 이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준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원과 예배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삶을 말하였다. 감사는 환경이 아닌 믿음에서 비롯된다. 학생들이 기도와 감사로 믿음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했다.

▲ 하덕규 목사 (9월 2일)

하 목사는 자작곡 ‘사랑일기’와 ‘가시나무’ 등을 부르며 당시의 방황과 고독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간증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삶에 대한 답을 발견하였다고 예수님은 우리와 기꺼이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하 목사는 노래와 간증을 통해 학우들에게 무거운 짐은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쉽고 회복의 은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 송태근 목사 (9월 3일~4일)

한나의 불임 사건은 개인의 슬픔이 아닌 당대의 영적 비극이 담겨 있다. 제사장조차 타락했던 시대에,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영적 고립감이었고 이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였고 사무엘을 낳아 이스라엘을 세우는 등불이 된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도 풍랑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연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본질이다. 학우들이 풍랑 속에도 하나님을 붙들며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학기가 되기를 권면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행 19:8~20)

권용준 교수 (성서학과)

방학이지만 몇몇 학생들은 매일 캠퍼스에 모이고 있습니다. 9월 12일,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할 뮤지컬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날마다 마음을 쓰며 살아갑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복음을 전합니다. 문제는 바울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시작, 석 달 만에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바울의 실패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우리의 전도도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후 두란노서원으로 가서 사람들이 서원을 이용

하지 않는 낮잠 시간(씨에스타)에 매일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물려와 말씀을 들었고, 마침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굳어있는 가족과 이웃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시고 그들 안에 말씀이 흥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전도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 더 놀랍고 성공적인 전도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미니설교

2026년 밀알훈련 뜨거운 성서인 정체성 새겨 훈련생 236명과 자원봉사자, 143명 참여



▲ 학우들이 산행 과정 중에 포진지 앞에 모여서 잠시 휴식하고 있다.



▲ 성서인의 다짐을 선서하고 있다.



▲ 자작나무숲 산책로를 따라 지주목을 박으며 작업 중이다.

2026년 밀알훈련이 8월 19~28일까지 포천밀알훈련센터에서 3차(1차 19~21일/2차 24~26일/3차 26~28일)로 나뉘어 진행됐다.

훈련생들은 7개 조로 나뉘어 저녁 성경 읽기와 묵상 시간에 사용할 텐트 설치로 훈련 과정을 시작하였다. 이어 자작나무숲 산책로 중심으로 지주목과 끈을 연결하는 노동, 임도와 능선을 따라 자작나무숲을 걷는 '우리땅 밟기' 산행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선배들이 오랜 시간 심고 가꿔온 숲을 직접 확인 하며 학교와 공동체에 대한 의미도 되새겼다.

저녁에는 조별로 산막 텐트에 모여룻기를 묵상하고 기도 제목과 간증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전체 훈련생이 '성서인의 다짐'을 함께 선서하며 뜨거운 성서인 정체성과 비전을 마음에 새겼다. 이번 밀알훈련은 노동과 산행, 말씀과 나눔을 통해 섬김의 가치를 몸으로 배우고 공동체의 의미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이번 훈련에는 236명의 훈련생과 143명의 자원봉사자(학생 89명, 교수, 직원 54명)가 참가했다. 1학년 참가대상자 236명 중 147명 만이 참가 62.3%를 기록하였고 2-4학년, 대학원 대상자 222명 중 89명 참가 40.1%를 보였다. 2025년 참가율은 1학년 64.2%(-1.9%), 2-4학년, 대학원 44.2%(-4.1%)로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2.6% 줄어든 참석율이다.

2026년도 밀알훈련 참가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026년 밀알훈련 참가자 현황(2026.08.19~26)

2026	1학년						2-4학년	총계
	성서	사복	영보	간호	AI	소계		
대상자	53	43	36	51	53	236	222	458
참석자	28	30	18	40	31	147	89	236
참석율	52.8	69.8	50.0	78.4	58.5	62.3	40.1	51.5
2025년참석율	42.0	64.1	59.3	93.8	60.4	64.2	44.2	54.1
참석율비교	10.8	5.7	-9.3	-15.4	-1.9	-1.9	-4.1	-2.6

2026년 밀알훈련 자원봉사자 현황(2026.08.19~26)

	학 생							교수	직원	합계
	성서	사복	영보	간호	AI	대학원	소계			
인원	28	13	18	12	16	2	89	25	29	54
2025년인원	25	40	35	16	9	3	125	29	45	74
인원 비교	3	-27	-17	-4	7	-1	-36	-4	-16	-20

♡♡ 밀알훈련 소감문 ♡♡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아름다웠다”

간호학과 1학년 김주아



이번 밀알훈련에서 가장 깊이 마음에 남은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섬김이 생각보다 깊고 단단했다는 점이였다. 그분들은 우리 참여자보다 앞장서서 돕고 챙겨주는 그 모습이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스며왔다.

익숙하지 않은 노동과 산행을 견디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조원들과 함께 돕고 나누다 보니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 무엇보다 훈련생들을 위해 가까이 수고한 자원봉사자와 교직원, 교수님들의 헌신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다. 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나 역시 받은 사랑을 마음에만 간직하지 않고, 앞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

모두 감사합니다.

2026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 B등급

유연한 학사운영
성과지표 목표값 달성 등 좋은 평가
사업비 14억 5천
작년보다 1억 7천 줄어

우리 대학은 2026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교육혁신성과 영역 B등급, 자체성과관리 영역에서 B등급을 받았다. 2025년도 같은 평가에서 교육혁신성과 영역은 B, 자체성과관리 영역은 C등급을 받았었다.

교육혁신성과 영역에서 우리 대학은 전공선택 다양화, 나노디그리, 학생-교수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 유연한 학사운명을 하고 있다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입학 전 학생들에게 전담 AA(Academic Advisor) 교수 배정, 소그룹 상담 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지원 체계를 제공하는 한편 중도탈락 고위험군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지속을 돕고 있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이 영역에서 개선할 점은 학생-교수 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 전공 간 경계를 허무는 실적이 없어 아쉬웠고, 전공자유선택제는 양호하나 전공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교수역량강화를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에 교원 참여를 높일 인센티브제도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자체성과관리 영역에서는 자율성과지표의 달성률이 모두 목표값을 초과하여 성과 창출을 위한 대학의 노력이 확인되었고, 사업추진 거버넌스와 위원회의 운영실적도 우수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진단-환류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개선 보완사항은 일부 위원회에 학생위원이 임명되지 않았다는 점, 성과관리 조직에 재정지원사업의 중복성 검토 및 조정 역할을 하는 인적구성과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 지적 되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전국 143개 대학 중 A등급을 받은 대학은 43개교, B등급 72개교, C등급 28개교이다. 평가점수는 교육혁신성과 영역 80점, 자체성과관리 영역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이며 대학별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원금은 성과 평가에 따라 조정되는데 2026년도 사업비는 14억 5천 3백만 원으로 2025년 16억 3천 1백만 원 대비 1억 7천 8백만 원이 줄었다. 다만 앞으로 사업비 조정 등으로 지원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성서학과 과장에 이민규 교수 등

교수학습센터 윤혜진 센터장
특임교수 임용

성서학과 과장에 이민규 교수, 사회복지학과 과장에 안정선 교수, 사회복지대학원 주임에 원영희 교수가 임명되었다.

교수학습센터 윤혜진 센터장은 기초교양교육과 특임교수에 임용되었다.



▲ 이민규 교수
(성서학과 과장)



▲ 안정선 교수
(사회복지학과 과장)



▲ 원영희 교수
(사회복지대학원 주임)



▲ 윤혜진 교수
(기초교양교육과 특임교수)

1학기 중도 탈락률 2.12% 최저 기록

학교를 떠나는 사유
'진로고민'이 제일 많아

2026-1학기 우리 대학 학우들의 중도 탈락률은 2.12%로 지난 3년 이래 1학기 중도 탈락률 최저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2.87%, 2024년 2.74%, 2023년도는 2.51%였다. 한편 연간 중도 탈락률은 2025년도 7.66%, 2024년도 5.83%, 2023년도 8.03% 등 탈락을 보여오고 있다. (아래 표 참조)

2026-1학기말 현재 중도 탈락 학우는 모두 24명인데 사유는 진로 고민(타대학 준비, 취업, 공무원 준비)이 가장 많았고 (16명, 66.67%) 미복학, 미등록 등 말없이 떠나는 학우들 (6명)이 그 다음이다. 학과별로는 성서 6명, 사복 7명, 영보, AI융합 각 4명, 간호 3명이다.

2026-1학기 휴학률도 8.65%로 지난 3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 2025년 12.79%, 2024년 10.33%, 2023년도는 9.04%였다. 휴학 사유도 중도 탈락 학우들과 같이 '진로 고민'이 가장 많았다. 1학기 휴학자는 모두 98명인데 그중 42명, 42.85%가 불투명한 진로 때문이다. 42명 중 뭉뚱그려 '진로 고민'이라고 말한 학우가 25명, 타 대학 준비 11명, 공무원 취업 준비 6명이다. 다음이 군(軍)입대, 군입대 준비(24명, 24.48%), 건강, 가정, 경제 문제 (22명, 22.45%)가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중도탈락 문제가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난과 상위권 대학 재입학 시도가 주요 원인이라 분석한다. 특히 지방대학과 소규모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탈락자 문제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교학처 담당자는 “우리 대학 중도 탈락생들의 주요 사유가 ‘진로고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가 진로 상담은 물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 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는 “입시 단계에서 부터 우리 대학의 정체성 즉 ‘복음전도자’ 양성 대학이라는 점을 지원자들에게 분명히 하여 입학한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1] 학과별 중도탈락 사유 (2026 8.31 현재)

학년	신앙 교육부담	진 로					건강·가정·경제				군(軍)			기 타					합계
	계	진로 고민	타대학 준비	취업 준비	공무원 준비	계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경제 사정	계	군입대	군입대 준비	계	미복학	미등록	재학년 한초과	기타	계	
성서		1	1	1		3								2		1		3	6
사회복지	1		2		2	4								1	1			2	7
영유아보육		1	2			3								1				1	4
AI융합			1	2		3		1		1									4
간호		3				3													3
계	1	5	6	3	2	16		1		1				4	1	1		6	24

[표2] 학과별 휴학 사유 (2026 8.31 현재)

학년	신앙 교육부담	진 로					건강·가정·경제				군(軍)			기 타				합계
	계	진로 고민	타대학 준비	취업 준비	공무원 준비	계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경제 사정	계	군입대	군입대 준비	계	학기 조정	여학 연수	기타	계	
성서		2	3		1	6	5	2	3	10	2		2				0	18
사회복지		7	1	2	1	11		1	1	2	4	1	5		1		1	19
영유아보육		7			1	8	2		1	3		1	1	1			1	13
AI융합	1	6	4		1	11	2		2	4	9	7	16			1	1	33
간호		3	3			6	2		1	3			0	4	1	1	6	15
계	1	25	11	2	4	42	11	3	8	22	15	9	24	5	2	2	9	98

대학원 2학기 개강예배

박태수 교목실장 설교

“우리 대학 선장은 예수님이시다”



▲ 박태수 교목실장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2학기 대학원 개강예배가 31일 오후 6시 로고스홀에서 160여 명의 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창선 교학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박태수 목사가 ‘폭풍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막 4:35~41)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 때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우리 대학의 선장은 예수님이시다. 이번 학기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자”라고 설교했다.

최정권 총장은 ‘건기·보기·쓰기·품위 있는 반복’의 말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원우들을 격려했다. “건다보면 길을 잃고 지치기도 하지만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되고, 본다는 건 선부른 판단보다 충분히 보고, 추측과 결론 사이의 틈을 오래 견디게 한다. 쓰기란 문장 모방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진정성 담긴 글을 쓰게 한다. 이 과정의 반복이 정확한 관찰과 성찰을 통해 사람과 사물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품위 있는 반복에 이르도록 해 줄 것”이라며 편견과 단편적 사고를 넘어 풍성한 삶을 당부했다.

강찬희(원우회 부회장) 원우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2학기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대학원 ‘시융합학전공 영어트랙’ 개강예배

파키스탄 8명 등 16명 참석

박태수 목사

“글로벌 복음전도자가 되기를”

대학원은 9월 4일 오후 브니엘홀에서 영어트랙 외국인 유학생 개강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파키스탄 8명, 방글라데시 7명, 네팔 1명 등 16명이 참석했으며, 입학 대기중인 원우가 있어 인원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빅데이터 경영 등 전공을 영어로 수강한다.

박태수 목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마 7:7) 제목의 영어 설교에서 자신의 유학 시절,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지냈던 경험을 전하며 “학우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모두 구원의 은혜를 받아 자신들의 고국에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글로벌 복음전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삭개오 이야기 담은 뮤지컬

‘The Found Sinner’ 공연

KBU임팩트봉사단(성서학과 20명)

9월 12일 로고스홀

KBU임팩트봉사단(단장 장인순 교수)과 성서학과가 오는 9월 12일(토) 오후 7시 로고스홀에서 삭개오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The Found Sinner’를 공연 (지도교수 권용준)한다. 성서학과 20명의 학우가 참여한 이 작품은 대본과 작곡에서부터 무대, 조명, 의상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다.

대본을 쓴 이민영 팀장은 이 작품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과 누군가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과 가장 멀어지는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학 동안에도 학생들은 매주 세 차례 이상 학교에 모여 연습했다. 익숙하지 않은 대본과 음악, 연기와 무대, 의상 제작 등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숀한 어려움 앞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힘만으로는 넘기 어려웠던 여러 순간을 뜻밖의 방법으로 넘는 작은 ‘기적’을 경험했다.



대학원 신입생충원율

96.30%

전국 대학원 충원율
하락 추세 속에서

2026학년도 우리 대학 대학원(원장 조혜경 교수) 신입생충원율은 모집정원 81명 중 78명이 입학 96.30%를 기록, 지난 3년 이래 가장 좋은 충원율을 보였다. 일반대학원(석·박사 과정)은 25명 모집에 25명, 특수대학원(신학, 사회복지, 보육대학원) 56명 모집에 53명이 입학하였다.

2025년도 신입생충원율은 81.48%로 66명이 입학, 2024년도에는 90.12%로 73명이 입학하였다. (표 참조)

대학원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모든 대학원들이 신입생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부분은 정원 미달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신학대학원의 형편은 더욱 열악하다. 대형 교단 신학대학원인 총신 93.4%, 장신 99.6%, 감신 85%, 침신 81.3%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신학대학원은 37명 모집에 35명 입학 94.59%를 기록, 비교적 선전을 한 셈이다. 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는 9명, 특수대학원 보육대학원은 11명이 입학, 쾌조를 이루었다.

2026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대학원	과정	모집인원	2026년 최종 입학 인원	모집인원	2025년 최종 입학 인원	2024년 최종 입학 인원
일반대학원	박사 및 석·박사통합	5	5(100)	5	5(100)	5(100)
	석사(신학, 상담, 간호, AI)	20	20(100)	15	15(100)	15(100)
	소계	25	25(100)	20	20(100)	20(100)
특수대학원	신학대학원	37	35(94.6)	37	35(94.6)	37(100)
	사회복지대학원	7	7(100)	7	5(71.4)	7(100)
	보육대학원	12	11(91.7)	17	6(35.3)	9(52.9)
	소계	56	53(94.6)	61	46(75.4)	53(86.9)
합계		81	78(96.3)	81	66(81.5)	73(90.1)

국제교류센터장 윤석훈

시설관리팀 유재혁 직원



▲ 윤석훈 센터장



▲ 유재혁 직원

국제교류센터에 윤석훈 센터장과 시설관리팀 유재혁 직원이 새롭게 합류했다. 윤 센터장은 한국외국어대 일반대학원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하였고 전문대학 국제교류협의회 사무국장 및 부회장을 역임하며 유학생 관련 업무에 임해 왔다. “성서대 가족이 되어 감사하다”며 “학교의 교육이념을 새기고, 경쟁력 있는 국제교류센터가 되도록 열정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재혁 직원은 2010년 본교 성서학과를 졸업, 유아 콘텐츠 개발 분야에서 13년간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모교에서 일하도록 사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며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보보호 수준 중 개인정보 보호분야 ‘A등급’으로 수직 상승

우리 대학 90.5점으로 역대 최고!

26일 교육부의 정보보호 중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우리 대학은 종합점수 90.5점을 받아 최고 수준인 ‘A등급’을 획득하였다. 2015년 시작된 교육부의 연례 정보보호 수준 평가에서 역대 최고 점수다.

진단평가의 세부 항목은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5.5점(29점 만점·B등급)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28점(31점 만점·A등급) ▲침해사고 대책 수립 및 운영 35점(40점 만점·B등급) ▲정보유출사례 전파 실적 2점(2점 만점·A등급)에 종합 90.5점이다. 전년도 D등급에서 4단계 도약했다.

전산관리팀(팀장 김덕원)은 전년도 하락 만회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신규 절차서 6종 수립 ▲각종 문서의 전자문서화 ▲진단 항목별 증빙자료 체계화와 지속적인 이행점검 강화로 결과를 이뤄냈다.

김덕원 팀장은 “이번 A등급 달성은 정보보호에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대학 정보보호 수준진단은 교육부가 대학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 개선을 위해 해마다 실시되는 평가다. 우리 대학의 3년간 정보보호 진단 성적은 2023년 D등급 (67점), 2024년 B등급 (84.5점), 2025년 D등급 (62.5점)이었다.

박태수 교수 ‘정년보장교수’ 임용

2026년 4차 이사회



▲ 박태수 교수



▲ 홍설자 명예이사

2026년 제4차 이사회가 8월 18일 오후 2시 밀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대학이 ‘정년보장교수’로 임용 제청한 박태수 교수(성서학과, 교목실장)를 ‘정년보장교수’에 임용하기로 의결하였다.

박태수 교수는 2004년 교원 임용 후 일립생활관장, 대학원 교학처장을 거쳐 현재 교목실장을 맡고 있다. 이사회는 또 미국 이주로 이사직을 사임한 홍설자(Crawford Sue Hong) 전 이사를 명예이사로 추대하는 것을 의결하였다.

이사회는 이밖에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개정(안)의 제31조(일반대학원) 중 ‘시융합학부’를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제32조(특수대학원)에 ‘교육대학원’을 ‘보육대학원’으로 수정하는 것도 의결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간호학과 1학년 필수교과목으로 BRC(Bible Reading Class)를 개설하도록 권고’하는 서신을 총장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보내기로 의결하였다.

총장의 편지 _ 최정권 총장

하나님의 은혜



“십 년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으라. 영원히 거두려면 복음을 심으라” 우리 대학의 표어는 그냥 구호가 아니라 설립자의 실천적 삶에서 나온 겁니다. 그 증거는 포천밀알훈련센터의 나무들입니다. 뾰뚱하게 심긴 오늘의 나무들은 다 황무지에서 시작되었고 설립자의 희생과 선배들의 수고에 감사해야 한다고 매년 말하게 됩니다. 밀알 훈련을 마치고 주어진 8학기 중에 6학기를 지나게 된 시점에서 돌아보면 식상한 언어로 들리겠

지만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신 은혜 중에 기부금에 대한 은혜가 컸습니다.

매년 1억씩 보내 주신 교회는 미리 보내 주겠다는 약속이나 언질이 없었습니다. 총장이 되셨느냐 축하한다고 전화를 주시고 계좌 번호 달라고 하고는 아무 언질 없이 보내 주셨습니다. 이달에도 어김없이 보내 주셨고 다만 교회에서 현금하는 기준이 3년이라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될 것이 해량해 달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은 우리 대학과는 아무런 인간적 관계가 없는데 오직 복음 전도자를 양육하는 학교라는 정체성을 가진 성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학생들까지 보내 주셨습니다.

기부금 중에 이민자들의 피 같은 헌금을 보내 주신 미국과 홍콩 이민교회 목사님들과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샌디에고 거주하시는 두 분의 기업인이 보내 주신 기부금은 저에게는 잊히지 않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우리 동문들과 교회 그리고 씨앗에서 열매의 일만 기부모금을 통해 보내 주시는 분들과 교직원입니다. 기부자 명단을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벌거벗은 힘겨운 생존의 자리에서 벗어나 대학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생각해야 하는 총장의 자리가 무거운 자리라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동시에 총장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보게 해 주는 성찰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가는 경험에 비추어보고 기후 변화로 무너져 내린 네팔의 참사처럼 앞으로 대학에 다가올 위기의 쓰나미를 보며 느끼는 건 총장의 부족함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마다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그분 강하다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총장실 창문 넘어 보이는 만나보리 광장을 다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에서 주실 또 다른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인영 센터장 (한국어교육센터)

1년
2년
3년
4년



조연우 직원 (AI융합학부 조교)

1년
2년
3년
4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여름 속초시장에서 감자전을 먹었다. 모양도 그럴듯했고 맛도 익숙하게 먹어 온 한국의 감자전 그대로였다. 그런데 전을 부치던 사람은 외국인이었다. 그 맛과 눈앞의 풍경을 하나로 받아들이는 데는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 외국인은 우리에게 낯선 풍경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82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31만 명은 유학생이다. 외국인은 더 이상 '특별한 손님'이 아니다. 우리 대학 캠퍼스에도 106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생활하고 있다.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 본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서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 전 읽은 이민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는 마음에 남는 대목이 있었다. 사람들은 교육보다 자주 만나고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내용이었다. 읽는 순간 깊이 공감했다. 나 역시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수용성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수용성은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말리에서 온 유학생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겠다고 자신의 기타를 선물 빌려준 한국 학생, 유학생의 이름을 스스로없이 불러 주던 학생들, 언어는 달라도 함께 땀 흘리며 농구하는 학생들까지.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시고, 이름을 불러 주시며, 이야기를 들어 주시던 예수님이 떠올랐다.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편견을 내려 놓는다. 사회심리학도 서로 다른 집단이 자주 만나 관계를 맺을수록 편견은 줄어든다고 말한다. 나는 그 모습을 우리 캠퍼스에서 매일 본다. 어느 날 이름을 알게 되고, 함께 식사하고, 운동을 하다 보면 '외국인 학생'보다 먼저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 어쩌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한 사람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는 일인지도 모른다.

이어가는 기록

매년 초가 되면 빠지지 않고 하는 다짐이 있다. 이번에는 다이어리를 밀리지 않고 꾸준히 쓰겠다는 다짐이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비슷했다. 3월쯤까지는 열심히 쓰다가 점점 비어가기 시작했고, 9월이 되면 새 페이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다이어리를 쓰려면 책상에 앉아서 하루를 정리해야 했고, 괜히 제대로 써야 할 것 같은 부담도 있었다. 하루라도 밀리면 점점 쓰기 싫어졌다. '내일 써야지', '주말에 몰아서 써야지' 하다가 결국 그대로 멈추게 되었다.

다이어리를 계속 비워 두는 것이 아까웠지만, 막상 다시 펴서 쓰려고 하면 부담부터 들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다이어리 대신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핸드폰이나 노트북만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적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편했다. 처음에는 부담 없이 짧게라도 남기는 데 의미를 두었다. 길게 못 쓰는 날에는 몇 줄만 적었고, 생각이 많거나 기억하고 싶은 날에는 조금 더 길게 적었다. 그런데 이것도 밀리기 시작하니까 다시 귀찮아졌다. 밀린 걸 한 번에 쓰려니까 더 손이 안 갔다.

그래서 기록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 보기로 했다. 우선 글부터 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날 찍은 사진을 먼저 올리기로 시작했다. 사진을 보고 있으면 하루에 벌어졌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였고 어디를 갔었는지가 떠오르면서 글도 어렵지 않게 이어졌다.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기록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 들었다. 완벽하게 정리해서 남기는 것보다 끊기지 않고 계속 남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완벽하게 정리한 기록보다는 짧은 글과 사진 몇 장 만으로도 다시 떠올릴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잘 쓰려고 하기보다 그냥 꾸준히 남기는 쪽에 더 가까워진 것 같다.

반세호의

목양칼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교회가 함께 걷는 순례의 길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계절의 문턱에서 우리 온 교우가 가평 필그림하우스로 1박 2일 수련회를 떠납니다. 수련회의 주제는 ‘창조적 삶’입니다.

필그림하우스에는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재현한 순례자의 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성을 떠나 천성을 향해 걸어가던 그 여정을, 우리도 두 발로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등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 십자가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짐은 마침내 등에서 풀려 굴러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고 번연이 그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가며 짊어진 근심과 죄책, 지친 몸과 마음의 무게를 우리는 홀로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야 비로소 그 짐은 내려집니다.

이번 수련회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순례자의 길을 함께 걸으며, 각자의 삶에 짊어진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삶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듯, 우리의 삶도 다음 걸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난 한 계절을 애쓰며 걸어 오셨습니다. 맡겨진 자리와 가정에서, 삶의 무게 앞에 묵묵히 견디며 여기까지 걸어온 나 자신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참 수고 많았다.” 그리고 그 말보다 먼저, 주님께서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친 발걸음을 아시고, 흘린 땀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은 순례자의 길 어느 굽이에서 조용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와서 잠시 쉬어라.” 이번 수련회는 바로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천성을 향한 순례자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을바람처럼 선선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46

나를 키우는 말 이해인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고마워



사랑해



<https://blog.naver.com/readmylife75/224014508755>

사람들은 ‘사랑해, 고마워,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존중과 인정, 공감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도전할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듣기를 기다리는 객체가 아니라, 먼저 말을 건네는 주체가 되어 보자.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말은 타인에게 큰 힘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환하게 밝혀 준다.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우리의 마음은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 스스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며, 좋은 말이 만들어 가는 삶 속에서 “행복하다” 말하니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날마다 흘러넘친다.

“진심에서 우러난 한 줄기 말을 놓아 준 적 있는 자리에선 한 송이 기쁨이 반드시 피어난다. 그때가 언제이든” (한 송이 말의 힘, 김선우)

유아들이 안전 체험관에서 지진 대비 교육을 체험하고 있다.



대학어린이집

광나루 안전 체험관 견학

대학어린이집 유아들은 19일 광나루 안전체험관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이곳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시민 스스로 대응 역량을 기르도록 체험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다.

유아들은 지진, 화재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하고 대피하는 방법을 습득하였고 특히 실재를 가정한 상황에 참여하여 직접 몸으로 느껴본 시간이 되었다. [밀알반 교사 엄지원]

성서대 자원봉사팀이 어르신 가정에 온습도계를 설치하고 있다.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전공 연계 자원봉사 활동

한국성서대학교 AI융합학부 학생 15명(지도- 한진호, 박상민 교수)은 8월 월계종합사회복지관 관할지역 어르신 가정을 방문 온습도계 1개와 센서 등 19개를 설치하였다.

학생들은 돌봄 활동가들이 대상자의 상황과 활동을 관리할 지원 앱까지 개발해 주었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AI의 개념과 일상에서 활용 방법 안내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까지 높여주었다.

[지역사회조직팀 이동재 복지사]

영유아들이 색과 형태의 놀잇감을 활용한 놀이를 즐기고 있다.



꿈빛어린이집

바색을 찾아서

꿈빛어린이집 만2세~5세 영유아들은 14일 북서울미술관에서 '바색을 찾아서'에 참여하였다. 이 활동은 모둠별 프로그램으로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색과 형태의 놀잇감을 활용할 수 있는 놀이다.

바나나를 연상하는 조형물과 노란색 스티커 블록, 미끄럼틀을 활용한 신체활동과 분홍색 놀잇감을 비롯해 운동기와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도 경험하고 볼풀장에서 신체 놀이도 즐겼다. 유아들은 모둠별 놀잇감 탐색에 관심이 높았고 호기심과 탐색 능력을 키워 준 교육이 됐다.

[목련반 최호정 교사]

전교인수련회가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진행되었다.



성서대학교

전교인 수련회

성서대학교회는 16일~17일까지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가졌다. 반세호 담임 목사가 천로역정 길을 도슨트*가 되어 장면마다 의미를 설명하였고 교우들은 걸으면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묵상을 가졌다.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자리, 유혹과 시험의 길, 소망의 문을 지나며 마음에는 잔잔한 은혜가 오래도록 남았다. 이번 수련회가 창조적이면서 은혜로웠고 많은 감사가 새겨졌다. [홍성진 부목사]

*도슨트(Docent)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에게 전시물과 작가를 설명하며 이해를 돕는 전문 안내인

아동들이 외갓집 체험마을에서 뗏목을 타며 무더위를 날리고 있다.



월계지역아동센터

외갓집 체험하기

월계지역아동센터 아동 25명은 5일 양평으로 외갓집 체험하기를 다녀왔다. 이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들에게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또래 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 등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아동들은 밭에서 옥수수와 오이 등의 각종 농작물을 수확하며 결실의 기쁨을 느꼈다. 냇가에서는 생소한 물고기인 송어 잡기 체험과 뗏목 타 보기를 즐기면서 여름방학의 추억을 새길 수 있었다. [박경진 복지사]

영유아들이 빗소리를 오감으로 들으며 감각을 확장하고 있다.



상계백병원어린이집

세상의 모든 소리 경험하기

12일 상계백병원어린이집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주제로 두 번째 퍼포먼스데이를 진행하였다. 공연은 아이들이 세상의 다양한 소리를 오감으로 경험하도록 공간 안에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놀잇감을 갖춰 탐색이 이뤄졌다.

아이들은 악기와 빗방울, 놀이와 노래 등 다양한 소리를 경험하는 공간 안에서 놀이를 신나게 즐겼다. 악기를 연주하였고 거울에 물도 뿌려보고 물방울 모양의 놀잇감을 붙이면서 빗소리와 여름의 계절감을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 [푸른반 교사 이진아]

부모들이 강사로부터 베이비싸인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

베이비싸인

노원구 도담도담나눔터는 20일 영유아와 부모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베이비싸인을 진행하였다. 베이비싸인이란 영유아의 몸짓과 표정 등을 부모가 세밀히 관찰하고 정서적 교감을 함께 나누도록 돕는다.

전문 강사의 지도로 부모와 아기가 눈을 맞추고 노래와 놀이를 즐기면서 몸짓과 표정을 관찰하고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서로 간 다양한 표현으로 이해와 소통을 경험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 긍정적인 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을 높여 주었다. [보육전문요원 성은경]

장애통합부모들이 함께 김밥을 맛있게 만들어 유대감을 높였다.



상계5동어린이집

사랑의 도시락 만들기

25일 상계5동어린이집은 박란이 선생의 재능기부로 장애통합부모들과 행복을 담다, 사랑의 도시락, 김밥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박란이 선생은 캐릭터 초밥 아트 마스터이다.

엄마들은 김밥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함께 웃고 소통하며 정서적 환기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됐다. 참가 부모들은 상대에 대한 공감과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힘이 되는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김화영 원장]

영유아들이 아쿠아플라넷에서 바다생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



북서울어린이집

아쿠아플라넷 체험학습

늘사랑어린이집은 14일 만 2-3세 영유아들과 일산 아쿠아플라넷으로 현장 체험을 다녀왔다. 다양한 물고기류와 해양생물을 관찰하며 질문들이 이어졌고 바다생물의 생김새와 움직임을 통해 생각주머니를 키워나갔다.

닥터피시를 만져보는 체험과 바다생물 공연 관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양생물의 특징을 오감으로 즐겨보는 추억을 만들수 있었다.

[신나는반 김현애 교사]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중이다.



월계우리통합상담소

관계성범죄 피해자 지원 회의

월계우리통합상담소는 5일 월계북지관에서 도봉경찰서, 노원구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관계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현장에서는 공동 대응 모니터링 과정과 긴급숙소 및 안전 지원, 피해자 보호·연계 등 실무 중심의 자리가 되었다.

피해자 지원의 공백 최소화와 향후에도 신속한 지원 등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비롯해 향후에도 실무자 간 소통을 긴밀히 하고 사례 회의의 필요성을 지속하자는 데 일치를 이루었다. [유현숙 상담사]

「성서대학돕기운동」기부현황

www.bible.ac.kr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5년 7월 20일부터 2026년 8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 **접 수 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무 명	1억원 (운영)	임성일	250만원(운영)
장순복	1000만원 (운영)	장현진	150만원(영유아보육학발전, 운영)
성서대학교회	750만원(운영)	초대교회	100만원(운영)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구과 박예찬 신상춘 최미숙	10구과 박빛나	1구과 박영희 오미라 황영수
1구과 강현구 권하은 김영호 김은경 김용환 박창민 손영화 신대민 윤정숙 이경란 정영교 조소연 최종운 최주은	재학생 및 가족 5구과 구재서	40구과 지주나	2구과 최국열
2구과 김승례 김영태 김종남 노민지 박상수 박은성 이의선 이희숙 최수지 최주형	교직원 및 가족 0.5구과 이윤기 5구과 구광면 10구과 안창선 조현진	삼일성서교회 1구과 오성근	3구과 장문석
3구과 양미현 전지혜	일동성서교회 2구과 박문수	단체 및 기관 3구과 의정부좋은나무교회	5구과 김한길
	장자교회 5구과 장자교회	지역사회 10구과 임재택	
	부설기관 5구과 이인경	일 반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만원	강나경 강순성 강신용 강애슬 강은혜 강정희 강주옥 박미화 박원규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권순웅 권유철 권정인 권희조 금동욱 금필규 기상혁 김가영 김다솔 김도훈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엘 김미진 김민정 김민을 김병렬 김선근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수정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연정 김예진 김유미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용환 김일준 김재현 김정원 김정희 김정희 김종환 김 진 김진숙 김진영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현철 김혜영 김화석 나민석 나선영 나예민 남궁화 남범수 남성휘 노정현 노한나 노 만 류요한 류희정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경진 박문홍 박준성 박수진 박순미 박영모 박 원 박윤복 박재신 박정선 박종주 박지영 박창민 박태익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방지연 배은휘 배재원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서영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숙 변지훈 변민경 서유미 서 용 서진희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진규 송기철 송민규 송수옥 송지민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은 심두한 심인자 심희남 안성민 안현정 양은숙 양주향 양지환 양혜영 엄미자 엄보라 엄보영 연현숙 오세천 오차미 오재엽	오현호 용아름 우종엽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수정 유영진 유주홍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현중 이경란 이경일 이광석 이다원 이대환 이동혁 이두현 이문성 이미정 이민우 이민하 이병주 이복희 이분옥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선정 이세은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안나 이연선 이영식 이용원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윤 이정익 이정훈 이종근 이 진 이진경 이창호 이철숙 이하람 이하준 이하열 이현무 이현설 이현진 이혜란 이혜정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장동명 장윤국 장은희 장익봉 장익식 장현호 장호성 전명수 전명자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다연 정선도 정소영 정슬기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주영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민음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윤희 조은경 조차현 조현석 주민자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예은 최은빛 최재봉 최중운 최주은 최진희 최현정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건희 한경순 한상강 한선희 한지희 한혜우 허영숙 홍명수 홍선호 홍성대 홍원기 홍정심 홍혜경 황예린 강해든 이 설에스더 황보혜영 /손잡는교회 이예람	김성아 김성훈 김승례 김승희 김연정 김연주 김영래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유경 김은하 김재철 김정복 김태용 류충열 류한나 문혜진 민성희 박민주 박상수 박윤경 박은성 박인순 박재송 박재숙 박준호 박혜숙 성성은 소경숙 송인성 신기환 신성철 신정섭 신화영 안선례 양미현 양연주 유미영 유의숙 윤광길 윤덕진 이광삼 이권호 이기주 이나연 이마리 이상복 이선경 이선영 이슬강 이승찬 이예원 이우진 이유미 이유진 이의선 이재은 이종임 이충희 이현우 임은희 임은희 임주영 장연정 장유경 장재원 전영희 정나나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정인숙 조소정 최문정 최수지 최윤준 최인경 최현우 탁명화 허춘선 /등대교회/생명의빛교회	서부자 서수경 신치선 윤기성 이인영 이정원 이희숙 장은정 황보원 이례장학/주향교회 /가성교회 11만원 유선미 12만원 성낙표 35만원 박예찬 50만원 박강한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김윤영 김정녀 성정자 심희정 양은성 이동기 이미숙 이성란 이수진 장영철 전개화 정현규 조윤경 한승천 한경화 홍상기 홍장훈 황미숙 2만원 강은덕 강현중 권영진 김선옥 김수진 김정숙 김지영 김지혜 김창환 김형태 문순용 박유순 박은영 송동식 신동숙 안차남 여진옥 연성희 오명미 유효진 이동훈 이만호 이미영 이선미 이승진 이용구 이은영 이지영 이재은 이혜란 장영순 조복임 조율미 최경애 최영숙 최유승 함은애 허 정 3만원 박보병 배정숙 전희문 최정규 4만원 김성안 전옥순 5만원 권오길 김남숙 김희선 박선희 박인규 박동하 손미연 송희경 안종현 윤수호 이재현 이혜영 정주화 50만원 정태리
	1만5천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10만원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고난홍 박지윤 구연민 국소영 권오진 김득희 김규리 김복녀	김지애 장영훈 정동주 김선옥 김중숙 백승우 서광진	강신애 곽한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진 김애란 김준하 김형중 김호현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영자 박요서 박인혁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서한나 신 군 양승원 유성준 유연자 이가영 임수아 임재혁	

소계(20260721~20260820)	156,322,500
누계(20260301~20260820)	526,018,762

일시납 누계(2026.3.1~2026.8.24) 363,395,162원 | 약정자 누계(2026.3.1.~2026.8.24) 395구좌 | 연간 납입 예정액 47,400,000원